

전통적인 中國小說文學의 研究에 대한 프랑스의 기여

Ardré Lévy*

중국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정수를 흡수·소화한 이 나라에 와서 불란서의 중국학자인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를 한정하여 중국소설에 관한 불란서에서의 연구의 역사와 그 결과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관한 총괄적인 결과만을 말씀드리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카탈로그를 뒤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臺中에서 胡萬川교수의 지도하에 발간되는 中國小說研究專集 第3卷 (1981)에 “A Survey of French Studies on Chinese Classical Fiction: Past and Present”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체로 구어체로 된 이 문학에 관한 기이한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아직 오늘날에도 이 구어체로 된 문학은 학자들의 주목을 끌만한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연구를 한 것은 겨우 칠 팔십 년 전부터이며 이는 또 서양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통적인 중국문학을 가장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 나라는 불란서였습니다. 즉, 제가 알기로는 18세기 지식층이 가장 먼저 중국소설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의 genre에 관해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번역이 나오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기 부터라고 봅니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수정될 필요가 없는

* 프랑스 파리 제7대학 극동학부 부장

것은 아니지만,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8세기는 소설이 문학의 중요한 genre로 등장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장 훌륭한 저술가들이 활약한 불란서에서 그러하였읍니다만,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1971년에 발간된 “Études sur le conte et le roman chinois”(중국의 소설과 설화에 관한 연구)라는 저의 저서(pp. 1-13) “La condamnation du roman en France et en Chine”(불란서와 중국에서의 소설에 대한 거역)이라는 제목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나간 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더 소급시켜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전반적인 일을 상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서양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발견이었읍니다만 중국의 역할은 경시되었읍니다. 이는 근대화로 이끌어지는 지식혁명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읍니다. 19세기의 인간주의(humanisme)에게는 세계가 다른 하나의 넓이를 갖게 되었읍니다. Montaigne (1533~1592)가 다음과 같은 좋은 규정을 내리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정치와 예술은 우리들(불란서 사람들)것과 아무 연결도 없이 또 이를 알지도 않고 있으면서 여러 부문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으며 또 중국의 역사는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었던 세계가 얼마나 광범하고 다양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의 수상록은 구라파 지식층에게는 하나의 효소(酵素)였으며 도전이 있었읍니다. 중국의 문학, 특히 소설에 대한 그 다음 세기의 무관심은 중국에 관한 지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거의 모두 가톨릭교회에 소속하고 있었던 사실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알려준 것은 중국의 철학과 종교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중국문인들과 접촉을 가져 소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중국이나 불란서에서의 지성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소설이 처음으로 구라파말로 번역된 것은 1735년이었습니다. 이는 불란서 말로 된 것입니다. 이는 아주 조촐하게 시작된 것으로, Pétrone가 그의 *Satyricon*에 쓴, d'Entre-colles 신부(1662~1741)가 *今古奇觀*에 나오는 세가지 설화를 상세하게 *résumé*한 것입니다. 이를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가지 설화는 d'Ep-hèse 부인의 이야기와 그 내용이 흡사한 莊子の 배우자 이야기인 권 20의 莊子休鼓盆成大道(S II, 2에서 취함), 막내동생에게 배반당한 두 형제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 권 31의 呂大郎還金完骨肉(S II, 5에서 취함), 그리고 무죄한 주인을 범죄자라고 고발하는 충성심없는 하인의 이야기인 권 29의 懷私怨狼僕告主(P I, 11에서 취함)입니다. 이에서 이 예수회 신부는 중국사람이 상상한 문학이 높은 도덕성을 나타내고 있고 얕은 본능심을 만족시키는 불란서 저술에 비해 보다 우수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세가지 설화는 Du Halde 신부가 펴낸 유명한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중국과 인접지방의 지리·역사·연대기·정치·자연에 관한 기술)의 셋째 권 pp. 292-303, pp. 304-324, pp. 324-338에 실려 있습니다.

Du Halde의 이 책은 de Prémare 신부가 번역한 紀天祥이라는 극작품 가운데 나타나는 대화부분인 趙氏孤兒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구라파에서 비교적 빨리 알려졌습니다. 이를 주제로 한 Voltaire의 “L'orphelin de Chine”(중국의 고아)가 1755년에 공연되기 전에 이태리 사람인 Mé-tastase는 같은 주제로 “Eroe chinese”(중국인 주인공)이라는 오페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만 이는 1782년에 나폴리 사람인 Cimarosa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뒤 잊혀지고 Voltaire의 극작은 19세기에는 다시 공연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今古奇觀*은 단편·발췌의 형식으로나마 19세기에 이르러도 계속 번역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들이나 아이

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진 이 기분풀이의 문학을 멸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순진한 호기심을 가진 중국을 사랑하는 경향이 16세기에 생긴 인간주의(humanisme)에 뿌리를 내립니다. Térence (B. C. 195? ~ B. C. 159)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나에게 생소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Humani nil a me alienum puto.) 세계의 한 끝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특유의 방법을 가진 것이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는 Lesage (1668~1747)가 1707년에 발간된 그의 “Diable boiteux”(다리를 저는 악마) 안에서 상상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문학을 간직하기 위한 건물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중이 이런 관대한 마음을 선교사에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부시키기 위해 구라파에 보내진 예비신자들의 앞날을 예견하지는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1702년에 불란서어 도착한 福建출신인 Arcade Hoange는 한 파리 연인때문에 성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와 혼인하여 딸까지 얻었습니다. 살아 나가기 위한 탕도를 강구할 목적으로 구라파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설을 번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불행히 그는 독감으로 171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약 반세기 전에 발행된 전 20권의 애정소설 玉嬌梨에 이끌리고 있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결국 비교적 장편인 중국소설은 처음으로 John Wilkinson에 의해 런던에서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이는 好逑傳을 번역한 Huges Percy의 “The Fortunate Union”의 포르투갈어 판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Arcade Hoange는 파리의 Salons을 드나들었으며 자기 자신 그의 나라의 대사라고 자처했으며 1713년에는 Montesquieu (1689~1755)와 대화를 나눈 바가 있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L’esprit des Lois”(법의 정신)은 그의 “Geographica”(지리; 그의 저작 전집, 1964년 Le Seuil판, p. 370)에 이 대화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Arcade Hoange와의 소설에 관한 이야기에서 얻은 결

론은 비교의 위험을 과장하게 왜곡한 방식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국인의 소설 : 소설은 중국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것 같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기한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기사(騎士)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amadis나 스페인 소설보다 도가 지나치는 것으로, 예컨대 순식간에 군대를 무찔러 버리는 마술사가 같은 식으로 이 군인들이 나타나게 한다거나, 또는 같은 마술솜씨로 자연의 세계를 손아귀에 쥐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매정하고 비정상적이다. 남녀의 관계는 여자들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애사건은 드물게 나타나고 취급하기가 힘들다. 한 처녀를 기사(騎士)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기계나 용수철 같은 것이 필요하며,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사, 오년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이나 모험적인 행동으로 보아 모범으로 삼을 수 없는 남녀 주인공들로 필연적으로 (소설이) 흥미없게 되고 만다.”

이러한 부정적인 판단은 적어도 그 뒤 한세기 동안 Arcade Hoange의 시도가 뒤를 잇지 못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련의 사건이 불란서에서의 중국소설연구가 이룩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Nicolas Fréret (1688~1749)라는 사람은 중국을 연구할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아랍전문가인 Étienne Fourmont (1683~1745)와의 관계가 나빠진 결과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종교와 관계없이 “아카데미”하게 중국을 연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764년 불란서에서의 예수회의 폐지는 이들의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해상교통 발전, 불란서 식민지팽창의 실패 그리고 그 뒤의 혁명은 그때까지 계속되던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을 사랑하는 경향이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지키게 하던 현명한 전제정치 대신에 폭군의 정치, 정체가 더 나아가서는 후진하는 경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북경의 궁전에 살던 예수교 선교사들 대신에 좀스러운 관료들의 부패를 경험하고 그의 희생자가 된 廣東의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중국을 알게 하

는 이 하나의 새로운 길은 다른 층의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대중문화에 젖어버리고 맙니다.

옛 정치제도(ancien régime)의 암흑에 반대하는 구라파의 계몽철학자들에 의한 오랜동안의 연구발전 지해가 끝나고 보수적인 영속성의 모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경향이 Napoléon이 추방되고 복귀하는 기간 사이에 Louis 18세에 의해 Collège de France에 1814년 12월 11일 중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동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양에서 처음으로, 영국보다 60년 앞서서 중국연구가 대학교육의 정규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 불란서 사람들이 중국에 관해 언제나 관심을 가져왔음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세의 나이로 이 강좌를 처음으로 담당한 Abel Rémusat(1788~1832)는 중국의 고전문어와 회화체를 구별하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1816년 왕실도서관장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그는 1728년에 de Prémare가 지은 문법에 관한 초고, Arcade Hoange가 미처 끝내지 못한 원고와 Arcade Hoange가 번역하려던 소설 원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bel Rémusat는 Paris의 Moutardier 출판사에서 1826년 “Les deux Cousines”(같은 혈족의 두 여자)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번역을 출판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같은 출판사에서 이미 번역된 것을 Abel Rémusat 이름으로 수록한 “Contes chinois”(중국설화 : 3권)을 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는 Collège de France에서의 그의 강의 text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bel Rémusat의 뒤를 이은 그의 제자 Stanislas Julien(1797~1873)은 1832년에 호열자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도 같은 text로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부언할 것은 1795년의 법령에 따라 개설된 É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국립 동양어 학교)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기 쉬운” 만주말을 통해 중국문학의 보고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강좌가 1843년에 개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학교에서 중국어를 처음으로 가르친 사람은 Stanislas Julien의 제자인 Antoine Bazin (1799~1863)입니다. 이 뒤 수십년 동안 회화체의 문학이 당시 이 분야에서 구라파의 가장 우수한 대학교수들에 의해 전례 없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연구되었습니다.

“Aperçu historique des études sinologiques en France”(불란서에서의 중국연구개요 : Acta Asiatica, 11, 東京, 1966, p. 81)라는 논문 안에서 타계하신 저의 은사 Paul Demiéville님은 Julien과 같은 권위있는 학자가 정성을 기울여 *petits romans à l'eau de rose*(너절한 소설), 즉 잘 알려지지 않은 白蛇精記(빠리 Gosselin 출판사, 1834.)를 번역하였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에 Didier출판사가 “Les deux jeunes filles lettrées”(두 여학자)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平山冷燕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밖에 Stanislas Julien은 시문체로 된 부분을 포함한 玉嬌梨의 양심적인 번역을 1864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Julien이나 Bazin은 중국에 간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인들의 가치관념을 몰랐다가보다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Bazin의 1853년, 당시로 보아서는 가장 완전한 중국문학개요에서는 소설과 연극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cf. *La Chine moderne ou description historique, géographique et littérature de ce vaste empire, d'après des documents chinois*: 근대중국[부재 : 중국문헌에 의거한 이 방대한 제국의 역사, 지리, 문학에 관한 개요], p. 391-553).

그는 이 책의 p. 475에서 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才子書는 북경의 황실도서관의 목록안에 나타나 있다. 특선한 책을 모아둔 이곳에서는 구어체로 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학자들의 생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종류의 문학은 단순히 기쁨을 갖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런 문학이 소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너절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문학의 한 genre는 중국과 그 나라 사람들에 관해 구라파에서 모르고 있는 여러가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Antoine Bazin이 아편전쟁, 그리고 일사적이나마 중국의 문호개방 뒤에도 계속해서 중국문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처음으로 문학전체의 개관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才子, 즉 천재적인 저술가(또는 書)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점입니다. 그는 열명의 근대작가 이름을 모두 소설의 제목으로 생각하여 “옛 才子”라는 항목에 대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이 형용어는 水滸傳을 離騷, 莊子の 저서, 史記, 그리고 杜甫의 시 다음의 다섯번 째의 “천재적인 작품”——여섯번 째 것은 원나라때의 희곡체로 된 王實甫의 西廂記——으로 간주한 金人瑞(聖歎: ?~1661)의 평론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구어체의 저술에 한정하여, 필경 서적상인들의 주장으로 그 수를 점차 늘리고 고친 List는 바로 이렇게 출발된 것입니다. 여덟번 째의 천재적인 작품인 花箋集은 廣東지방의 彈詞 genre의 ballade입니다. 1824년에 나온 Thomas의 번역, 변안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깝니다만, 1827년 1월 31일에 Goethe는 Eckermann과 중국소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그리 단순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들이 우리들(구라파 사람들)과 거의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들(중국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매우 빨리 느끼게 된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여러 곡절을 겪은 뒤 두 여자와 동시에 혼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Les deux cousines”(같은 혈족의 두 여자)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또 꿈꾸게 하기도 합니다. 才子佳人을 주제로 하는 이런 종류의 중편소설이 구라파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 취향을 자극한 것입니다만 이는 구라파의 여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필경 毛宗崗에 의해, 대하소설인 三國志演義는 “첫째의 천재적인 작품”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 일을 Théodore Pavie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1851년 제35권까지 번역하고 그 뒤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빠리의 Duprat 출판사에서 간행된 그의 번역의 제목에는 만주어 번역(San-kouetchy, Ilan Kouroun-i pithé)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74년 d'Hervey de Saint-Denys 후작(1823~1892)이 Stanislas Julien의 후임으로 Collège de France의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동안 순문학(belles-lettres)의 우위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에 의해 당(唐) 나라 때의 시의 훌륭한 번역이 이룩되었습니다. 그는 今古奇觀에 나오는 소설을 1888년에 셋, 1889년에 셋, 1892년에 여섯, 전부 열두 편을 계속 출판하였습니다. 이는 제4, 10, 11, 23, 24, 25, 27, 32, 33, 37, 38, 39권 입니다. 전에 이룩된 그리 훌륭하지도 못하고, 충실하지도 못한 것들에 비해 이 새로운 번역은 그 문체가 특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는 근자에 와서 Maisonneuve & Larose 출판사가 다시 간행한 바 있는 것입니다.

Pavie가 시도한 뒤로 불란서에서는 아무도 중국소설문학의 중요한 작품을 번역하지 못했었습니다. 1893년 Edouard Chavannes (1865~1918)가 Collège de France에 오게 되나 다만 이때 순문학(belles-lettres)은 대학에서의 연구분야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소설은 학자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아마추어들의 차지가 됩니다 다만 교양있는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아편전쟁 뒤, 영사관, 세관에서 문학에 취미를 갖고 또 중국인들과 직접 만난 경험을 가진 훌륭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리하여 Théophile Piry가 애정소설 二度梅를 번역하여 1880년 빠리의 Dentu 출판사에서 간행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는 George Soulié de Morant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20년대에 많은 번역을 합니다

만 여기 일일이 그의 업적을 열거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번역을 즐겨하였는데 이는 중국소설문학의 독창성과 때로는 보잘 것 없는 외국냄새가 삼입되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구라파의 여러나라 말로 된 번역, 또는 중역 가운데서 불란서 말로 된 것이 가장 앞섰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그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1930년대의 일로는 파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젊은 중국 학자들의 업적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1919년의 5.4운동 뒤의 중국지식층의 방향전환을 반영한 소설이 그 중 큰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들 연구는 오늘날에는 이미 뒤진 것이 되어 버렸으나 이런 일은 구라파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던 일입니다. 1933년에 파리에서 나온 吳益泰의 “Essai critique et bibliographique sur le roman chinois”(중국소설에 대한 문헌 비판)은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을 많이 이용한 것입니다. 賀師俊의 儒林外史에 관한 연구, 1935년에 나온 郭麟閣의 紅樓夢에 관한 연구는 아직 또 다른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생각한 것보다는 암흑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André d'Hormon (1881~1965)이 뒤에 파리대학에 소속되는 漢學研究所를 북경에 창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란서의 여러 중국연구전문가들이 이 연구소에서 양성되었습니다. d'Hormon에 힘입어 순문학 특히 소설이 이곳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傅惜華, 戴望舒, 吳曉銓과 같은 사람들이 불란서 말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2차대전 뒤에 불란서에서의 중국연구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와 연구인원을 다량으로 증가시켜 연구가 다양화하고 연구소가 여러 곳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의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전통적인 소설의 연구가 제자리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란서와 중국의 관계가 정상화되자 새로운 정권에 의해 찬양되는 문학의 가치가 전통적인 소설문학의 연구를 호전시키기도 하고 저지하기

도 하였습니다. 한때 대중의 관심은 현대문학, 주문과 형편에 따르는 작품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전통적인 대중문학은 정통적인 이데올로기스트의 주장에 따르는 과도기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Louis Avenol이 1957년에 Seuil 출판사에서 西遊記의 완역을 처음 출판하였다거나, Louis Ricaud가 사이공에서 1960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기간에 三國志의 첫째부분인 45권의 번역과 주석을 출판한 것은 개인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후자의 번역은 Flammarion 출판사가 일을 계속하여 사이공에서 나온 세 권을 다시 간행하였습니다.

肉蒲團은 Franz Kuhn의 독일어 번역에 자극을 받아 Jacques Pimpaneau가 불란서 말로 번역하였습니다만 질로 보아 불란서 것이 보다 우수합니다. 이 Pimpaneau는 그 뒤 예술과 연극을 주로 공부하였습니다만, 1965년에 Journal Asiatique의 제253권에 백사(白蛇)를 주제로 하는 淸平山堂話本の 설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燉煌 자료에 의한 회화체 문학이 Collège de France에서의 Paul Demiéville (1894~1979)의 강의의 제목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작품의 번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René Étiemble (1910 출생)의 덕택입니다. 그는 Gallimard 출판사에서 “Connaissance d’Orient”(동방의 지식)이라는 이름의 전집, 특히 유명한 Pléiade전집의 문학관계 책임자로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Connaissance d’Orient” 전집 안에 본인은 1970년에 凌濛初(1580~1664)의 初刻, 그리고 二刻 拍案驚奇에서 뽑은 열 두 편의 단편을 간행하게 하였으며, 1972년에는 “Antre aux fantôme des collines de l’ouest”(서쪽에 있는 숲속의 귀신소굴)이라는 제목으로 京本通俗小說에서 뽑은 일곱편의 단편을 출판하였습니다. 1976년에 나온 張復蕊의 儒林外史의 번역은 구라파 말로 번역된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Au bord de l’eau”(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Jacques Dars의 水滸傳의 번역으로 이는 1978년에 Pleiade 전

집 안에 수록되었습니다. 2,500페이지의 전역인 이 번역은 놀랄만한 일이며 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번역은 거의 3만부가 팔렸습니다.

李志華가 번역한 紅樓夢도 1981년에 같은 Pleiade 전집에 나왔습니다만 이는 문학적으로는 앞의 것에 비해 더 큰 가치를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기에 아무리 번역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보다 더 놀랄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982년에는 陳慶浩에 의해 “Le Hong-loumenger les commentaires de Zhiyanzhai”(紅樓夢과 脂硯齋의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불란서 말로 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1978년에 이르는 “hongologie”(즉 rubéologie 紅學)에 관한 훌륭한 개요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열거가 지루하게 생각될 지 모르지만 청나라 말기 소설의 두가지 번역을 보태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9년에 吳沃堯가 Jacques Reclus의 지도 아래 Fayard 출판사에서 “Crime et corruption chez les mandarins”(관리들의 죄와 부패)라는 제목으로 된 九命奇冤의 훌륭한 번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Isabelle Bijon이 시도한 1983년 TER 출판사 간행의 曾樸의 孽海花입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경우 초판의 원문이 이용되지 않았음이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이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본인 자신의 업적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통속적인 말로 된 話本에 관한 것, 그리고 역사적·사회적인 면에 치중하면서 물질문명의 발달 단편에 나타나는 thème와 그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1985년 5월에 출판될 예정인 金瓶梅詞話의 전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소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몇가지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는 한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그리고 복잡한 길을 걸어오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 즐거움을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불란서에서의 중국전통소설의

연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번역의 질로 보거나 이를 주제로 한 학술적인 연구로 보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은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의 업적입니다. 연구에 비해 발전은 적습니다. 이론화는 아직도 그리 큰 발전을 못 보고 있으며, 새로운 비평의 접근은 보다 더 고전적인 문헌의 연구를 충실하게 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세대에게 기대해야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의 계획은 이미 실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inventaire analytique et critique du conte chinois en langue vulgaire”(통속어로 된 중국설화의 분석·비판 일람)이라는 책은 1985년에 네째 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陳慶浩는 다른 연구팀과 중국 밖에서, 즉 한국과 월남과 일본에서 나온 소설의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武漢 대학과의 협조 아래 소설의 서문을 비판·편찬하는 일이 진행중입니다만 이 일은 전통적인 소설의 여러 판(板)에 관해 새로운 catalogue의 작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교류를 빈번히 하여야만 이 일이 깊이를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본인은 중국소설문학에 관한 불란서 사람들의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